

글. 강재훈 한겨레신문 사진부 선임기자, 사진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하나, 여자 둘이 들어와 옆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가게에 들어오면서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기까지 줄곧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 시키고 있었고, -중략-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실 새 없이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거기에 없는 다른 누군가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다. -중략- 한 커플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켜고 각자 거기에 빠져 있었다. 각자 바빠 서로에게는 무관심해 보였다. 이따금 전화가 걸려오거나 문자가 오면 오히려 표정이 풍부해지고 활기가 솟아났다. 외부에서의 자극이 중단되면 다시 좀비처럼 각자의 기계에 몰두했다. 바쁜 와중에도 궁금해졌다. 두 사람은 왜 만났을까. 전화로 소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더 서로를 더 깊고 애뜻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 글은 시인 성석제가 2012년 3월 13일자 모 일간 신문에 쓴 칼럼의 일부이다. 시인이 원고 작성을 위해 시내 한 커피숍에 들렀다가 겪고 본 단상을 적은 글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단면을 가감 없이 파노라마처럼 그려볼 수 있다. 어디 커피숍뿐이라. 지하철은 물론 버스와 식당에서 하물며 가정에서 까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무성 연극 같은 생활 속 풍경을 우리는 온 종일 만나고 있다.

'Smart Relationship ; asynchronous'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김정효는 시인 성석제가 느끼고 글로 쓴 일상을 사진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같은 생각, 같은 고민이다. 사진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해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담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자신이 작업한 사진 'Smart Relationship ; asynchronous'를 통해 걸으로 드러나는 실상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대의 척후병처럼 앞에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효의 사진에서 우리는 러시아 아방가르드 시대의 사진처럼 계몽적이거나 권선징악을 주장하듯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작가가 주제를 선택하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신의 주관적 생각과 의식을 “스마트폰이 만들어 내는 현실 풍경을 비판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마치 지구의 종말이라도 오는 듯 무겁고 무섭게 그리고 싶지는 않았다.”고 정리했기 때문이다. 'Smart Relationship ; asynchronous'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따듯하고 좀 더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작가 스스로 소망을 밝혔듯이 그 생각의 실현을 위해 사진의 사회적 기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을 보고 있자니 ‘자, 이제부터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하며 토론의 장을 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1982년에 발표한 소설 '時間의 門'에서 작가 이청준은 다음과 같이 사진에 대해 적고 있다. “사람의 삶이 드리우지 않은 사진은 사람의 시간을 담을 수 없다.” 이는 보다 궁극적인 삶의 본질적 양상에 대한 인간존재와 이에 대한 작가의 신념이 엿보이는 문장이다. 또한 1800년대 중반 프랑스의 화가 쿠르베는 상상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단순하게 현실의 상황을 지켜본 다음 미화하거나 이상화 하지 않고 현실에 의존한 진실을 표현한 화가로 평가 받고 있다. 쿠르베는 자신의 작품 활동 근거를 인간 스스로의 사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해석에 두었다. 이렇게 예술가들은 자신이 선택한 표현 도구를 이용해 끊임없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와 삶의 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효의 작업 또한 사진으로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관람자들에게 본인이 바라본 것을 이해하고 분석하게 하는 적극성을 띄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의 시간 즉,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조명을 이용한 밝은 노출로 보여주고 있지만 연출 되어진 무표정을 통해 결코 보여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숨겨둔 사진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다큐멘터리적인 접근이 아니고 설정과 세팅에 의한 실제 공간 속 구성 사진이라 해도 그 속에는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가 실재한다. 현실이 아닌 재현된 시공간의 설정이지만 그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디지털 세상에 빠져 현재를 잊은' 평소 스마트폰 사용 일상이 재현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작업을 기록의 기능과 인식을 재조명함으로써 감상자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포토리얼리즘의 형태로 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가가 의도한 사진 속 이야기를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을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 부지불식간에 스마트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거부하려 해도 거부 의사를 밝히기엔 이미 우리 일상에 너무 넓고 깊게 자리 잡아 어느새 수많은 사람이 사용자가 되어버린 컴퓨터와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화. 그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에 어쩌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새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눈빛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거나 소통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더 의미 있는 일이면 좋겠다는 소망이 내재된 이 사진 작업은 이미 이 세상에 논의 주제를 던진 것이다. 거기에 이 사진작업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진다.

끝으로, 일간지의 사진기자로 현장을 지켜내며 자신의 사진 의식 고취와 넓고 자유로운 사진 세계 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후배 김정효의 사진과 실천이 참 장하다. 그 길을 조금 앞서서 가고 있는 선배 입장에서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인지 알고 있기에 마음 다한 격려를 나누고 싶다. 자신의 말처럼 지금까지보다 더 충실한 역사의 기록자로 뜻을 이루길 진심으로 응원한다.